

2022-09-26 (2022-35호)

9월 26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달러 독주와 느슨해지는 저항... 분기말 수급·WGBI 편입 주목

서울, 9월2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 진행 상황 따라 상승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95-1,430원이다.

달러지수가 113선으로 올라 20년 만의 고점을 경신했다. 초강경 스탠스를 내비쳤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 회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파운드까지 급락하자 달러는 천정이 뚫린 듯 연일 강세다.

유로에 이어 파운드마저 달러와 등가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부상하는 등 현재 무섭게 진행되는 달러 독주에 제동이 걸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험자산과 통화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진 상황에서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위험 회피와 강달러 진행 수준 따라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불안 요인이 불거질 때마다 달러/원 환율이 꺾충꺾충 오르고 있지만 레벨이 높아질수록 상단 저항은 약화되는 모습이다. 과거와 달리 상단을 막아줄 수급 주체가 딱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장 내 차익 실현에 나설 포지션도 두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환율은 대외 여건 따라 마냥 끌려 올라가는 분위기다.

특히 현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때 거래됐던 구간을 지나고 있어 시장 자체적으로도 이렇다 할 상단 저항선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분기 말 수급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관건이지만, 최근 시장 패턴을 볼 때 분기 말이라고 해서 그간 보유했던 달러가 인상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9월 말에 발표 예정인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 여부는 관심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 그룹은 9월 말 연례 리뷰를 통해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찰대상국에 편입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가 시장 심리 안정을 끌어낼 여지도 있는 만큼 관련 결과를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금주에는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을 살펴봐야 할 듯하다.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지표로는 주 후반 미국의 8월 PCE 물가, 9월 중국 제조업 PMI,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 한국 8월 산업생산 등이 있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9월26일(월)

- ⊙ 한국은행: 국회 긴급현안보고
- ⊙ 금융감독원: '22.6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06:00)
- ⊙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0:00)
- ⊙ 금융위원회: '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S&P 연례협의 (14:00)
- ⊙ 기획재정부: 글로벌 신평사 S&P '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16:00)
- ⊙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17:30)

9월27일(화)

- ⊙ 한국은행: 2022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만기연장·상환유예 향후 추진방향 (08:00)
- ⊙ 금융위원회: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14:30)

9월28일(수)

- ⊙ 금융위원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 (10:00)
-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2년 9월) 발간 (12:00)
- ⊙ 통계청: 2022년 7월 인구동향·8월 국내인구이동 (12: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반도체 전문가 간담회 (15: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ADB 연차총회 (28~29일)

9월29일(목)

- ⊙ 한국은행: 2022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금융감독원: '22.8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06:00)
- ⊙ 한국은행: 2022년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 기획재정부: '22년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9월 발행 실적 (17:00)
- ⊙ 한국은행: 2022년 10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배포시)

9월30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통계청: 2022년 8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2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 ⊙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202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09:00)
-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2022.9 -논고: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 (12:00)
- ⊙ 한국은행: 2022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 ⊙ KDI: KDI 북한경제리뷰(2022. 9) (12: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15:30)
- ⊙ 한국은행: 2022년 2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배포시)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9월26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9월		51.5
9월26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잠정치	9월		49.5
9월26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8월		0.27
9월26일	23:30	미국	델러스연은 제조업 경기지수	9월		-12.90
9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1~8월		1.1%
9월27일	17:00	유로존	총 유동성(M3) 증가율	8월	5.6%	5.5%
9월27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8월		4.5%
9월27일	21:00	미국	건축허가	8월		1.517M
9월27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8월	-1.1%	-0.1%
9월27일	22:00	미국	FAFH 주택가격 MM	7월		0.1%
9월27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MM	7월		0.4%
9월27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9월	104.0	103.2
9월27일	23:00	미국	신규주택판매	8월	0.500M	0.511M
9월28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9월23일주간		264.7
9월28일	21:30	미국	도매재고	8월		0.6%
9월28일	21:30	미국	소매재고	8월		0.4%
9월28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지수	8월		89.8
9월29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9월		0.83
9월29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9월		97.6
9월29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9월		-28.8
9월29일	21:30	미국	기업이익 수정치	2분기		9.1%
9월29일	21:30	미국	GDP 확정치	2분기	-0.6%	-0.6%
9월29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9월19일주간		213k

9월30일	08:30	일본	실업률	8월	2.5%	2.6%
9월30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8월	0.2%	0.8%
9월30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8월	2.8%	2.4%
9월30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9월		49.4
9월30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9월		52.6
9월30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치	9월		49.5
9월30일	14:00	일본	건축주문 YY	8월		2.8%
9월30일	14:00	일본	주택착공 YY	8월	-4.1%	-5.4%
9월30일	18:00	유로존	CPI NSA	9월		117.78
9월30일	18:00	유로존	실업률	8월	6.6%	6.6%
9월30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8월	0.3%	0.2%
9월30일	21:30	미국	근원 PCE 가격지수 YY	8월		4.6%
9월30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9월		52.2
9월30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9월	59.5	59.5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9월26일(일)

- ⊙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오사카 지역 기업인 모임 연설 (오후 2시35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 출석 (오후 10시)
- ⊙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그레이터 보스턴 상공회의소 연설 (오후 11시)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워싱턴포스트라이브 화상 인터뷰 (27일 오전 1시)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주최 행사서 연설 (27일 오전 5시)

9월27일(화)

- ⊙ 찰스 예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 연설 (오후 7시15분)
- ⊙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바클레이즈-CEPR 국제통화정책포럼 연설 (오후 10시55분)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은 심포지엄 대담 참석 (28일 오전 9시35분)

9월28일(수)

- ⊙ BOJ, 7월20~21일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오전 8시5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애틀랜틱카운슬 포럼 참석 (오후 4시15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은행과 경제: 소수자를 위한 포럼' 토론 참석 (오후 9시35분)
- ⊙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은 주최 컨퍼런스 환영사 (오후 11시10분)
- ⊙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런던정경대(LSE) 행사 참석 (29일 오전 3시)

9월29일(목)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클리블랜드 연은·인플레이션연구센터 공동 주최 행사 참석 (30일 오전 2시)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보이시주립대학교서 정책 설명 (30일 오전 5시45분)

9월30일(금)

- ⊙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통화정책 관련 컨퍼런스 개최사 (오후 10시)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통화정책 관련 컨퍼런스 폐회사 (31일 오전 5시15분)

##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日 환시 개입, 효과 있을까
- ⊙ 러시아 동원령 발동
- ⊙ 유로존 물가 사상 최대치 경신할 듯
- ⊙ 미국 소비자들의 현주소
- ⊙ 이탈리아 총선 결과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칼럼) - 한은 총재의 포워드 가이드런스 딜레마

9월23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1990년대 초반 멕시코 경제는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강한 폐소화 가치 때문에 2% 초반의 미미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것도 그나마 1980년대 기록했던 1%대 성장률보다는 개선된 수치였다. 멕시코 정부는 1994년에야 비로소 폐소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멕시코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훼손되며 자본유출이 가속화된다.

멕시코에서 비롯된 소위 '테킬라 위기'는 남미 대륙 반대편에 있던 아르헨티나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정적이었던 아르헨티나였지만 일단 폐소화에 대한 투매가 시작되자 광풍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했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달려 대출의 롤오버를 제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경제 주체들이 달려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점진적으로 달려 유동성이 말라갔다. 아르헨티나는 결국 세계은행을 통한 구제를 받아야 했고 경기는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 당국에서 근무했던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작위적인 몇몇 외신 기사가 한국 경제의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면서 정작 위기의 당사자였던 국가들보다 우리가 더 심각한 달러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 달러 유동성 경색이 나타난 2008년 당시 국내 은행의 꼬인 스왑 포지션이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은 언젠든, 어떤 이유로든 위기의 전염 가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 ▲ 이창용 한은 총재의 포워드 가이드런스 실험

튼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포워드 가이드런스 때문이다.

이 총재는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경직된 포워드 가이드런스 때문에 대외 환경 변화 대처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조건부 포워드 가이드런스를 실험 중이다.

이 총재가 지난 잭슨 홀 심포지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를 보였던 비전통적 포워드 가이드런스는 미래의 정책 경로를 정성적인 내용이나 특정 시기, 임계치에 기반해 밝히는 것이다.

이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성공적이려면 중앙은행이 발표한 정책 경로의 이행이 실현 가능하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문제는 시장의 신뢰를 획득하고도 정책 경로의 이행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투기 공격이라는 부작용, 과도한 통화 절하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된다고 이 총재는 지적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대안으로 이 총재가 제시한 게 시나리오를 상정한 전통적 포워드 가이드런스(조건부 포워드 가이드런스)다.

통화당국이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포워드 가이드언스를 할 경우 경기 국면 전환 시점에 더욱 유연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때 “국내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당분간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건부 포워드 가이드언스를 준 것을 예로 들며 향후 신흥국들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의지하기보다는 시나리오 기반의 전통적 포워드 가이드언스를 정교하게 갖추는 데 노력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 조건부 포워드 가이드언스의 비용과 편익

올해부터 한은의 지휘봉을 잡은 이 총재의 직설 화법은 전임 이주열 총재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식 커뮤니케이션과 대비되며 시장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 총재의 투명한 소통과 디테일이 살아 있는 정책 경로 설명이 가능하려면 결국 전망에 대한 특권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화당국자의 모호한 커뮤니케이션은 경제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소음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마치 거대한 선박의 방향을 조정하는 작업처럼 매번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며 조금씩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식이다. 비록 '언더슈팅'의 위험은 있지만 나중에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판명 날 수 있는 특정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인플레이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 조건부 포워드 가이드언스 접근이 더 공격적인 정책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통화 당국자들의 뿌리 깊은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결국 구조적 부분에서 비롯된다.

경기 전환 국면에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신흥국과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들이 겪어야 할 어찌면 불합리할 수 있는 처분의 문제다. 소위 선진국들의 금리가 인상되며 내외 금리차가 축소되는 시점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할 경우의 문제다.

경쟁적인 금리 인상이 선진국, 신흥국 가리지 않고 심각한 경기침체 가능성을 키우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신용경색 이벤트가 발생하며 다시 달리 대비 급격한 통화 가치 절하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가속화되는 경우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괜찮다며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는 경우다.

#### ▲ 환율 전면 부상시 노이즈되는 '포워드 가이드언스'

이창용 총재는 지난 22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포워드 가이드언스가 전제와 관계없이 예고나 선언한 것은 아니란 것을 알 텐데 가장 큰 전제조건이었던 주요국, 특히 미국 연준의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가 한 달 새 바뀌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 총재가 사실상 10월 빅 스텝(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포워드 가이드언스의 전제였던 국내 물가와 성장률 전망에 극적인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율 상승에



다른 물가 전이 효과가 있겠지만 유가 하락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정점이 임박했다는 한은과 정부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고 성장률도 당초 예상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 매입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 통화당국의 선택지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지금 달러를 오퍼하는 곳들은 달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위기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 비드를 해야 할 곳들은 여유롭게 기다리다가 오히려 더 강하게 오퍼해 손절을 유도하려 하다. 변동성이 심리를 누르고 심리가 변동성을 키우는 자세에서 자기실현적 위기의 단추가 눌러지는 걸 한은은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모든 신흥국과 소규모 개방 경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 ▲한국, 신흥국과 사정 다르지만... 신뢰 확보가 관건

물론 한국의 사정은 다른 신흥국과 다르다.

지금은 엔화, 유로화, 위안화가 동시에 흔들리며 무차별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흐름이라 원화라고 딱히 용빼는 재주를 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테이퍼 탠트럼 당시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했을 때 원화 가치는 오히려 절상됐고, 2016년 중국발 경제위기 우려와 위안화 가치 급락 때도 원화는 신흥국 통화들과 다른 결로 움직였다. 기축통화국만큼은 아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안전 자산'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들은 다른 이야기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논리로 움직인다.

폭풍이 몰려왔을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큰 차이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 연준에서 국제금융 담당 부서를 이끌던 네이던 시츠가 정리한 통화스왑 편입 조건은 유명하다. 그에 따르면 연준의 통화스왑 안전망에 포함되는 국가는 경제 및 금융 규모가 상당히 커서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잘 관리되고 있어 미국의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국가, 달러화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뿐이다.

통화 가치 절하라는 파고 앞에서 신흥국 중앙은행은 포워드 가이드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워진다. 신흥국의 통화정책이 연준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한다면 국내 경제 전망을 특권화해 포워드 가이드를 내놓는 데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과 신흥국 경계선에 있는 한국 경제의 위상 제고된 위상을 감안하면 이 총재의 포워드 가이드 실험은 아마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환율이 '알파와 오메가'가 돼버린 시점에 당분간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듯하다.

지금과 같은 시점엔 중앙은행이 다양한 변수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오히려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이 총재의 딜레마다.

(편집 유춘식 기자)

((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전문가반응) - 日 엔 매수 개입... “日 통화정책 변화 없는 한 효과 일시적일 것”

9월23일 (로이터) -

일본이 22일 일본은행(BOJ)의 초저금리 동결 후 엔 약세를 막기 위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에서 엔 매수 개입을 단행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환율을 주시하고 필요시 엔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 조 린 골든이쿼터웰스 투자담당이사

"이러한 종류의 개입은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차이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효과가 있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환율의 일시적 반응이 있겠지만 달러/엔은 결국 다시 145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 마쓰자와 나카 노무라 수석 전략가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와 기시다 총리의 관련 발언이 중요하다. 일본은행(BOJ)이 완화 바이어스를 바꾸지 않는 한 개입과 관련해 미국의 환영 메시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달러가 강하길 원한다.

아베노믹스를 멀리 하지 않고는 현 정책이 엔 약세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개입의)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수에히로 도루 다이와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BOJ가 정책을 동결한 후 오늘 일본 시장이 휴장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 엔화가 더 약세를 보일 리스크가 있다.

달러/엔이 지난주 레이트 체크가 이뤄진 수준에 도달한 후 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45-146엔이 당분간 상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상을 가속화한다면 추가 엔 약세 리스크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 스투어트 콜 에퀴티캐피탈 수석 거시 이코노미스트

"시장은 지난 몇 주간 구두개입 강화로 언젠가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화 개입이 성공적인 경우는 드물고 오늘 움직임은 (엔에 있어) 일시적인 구제에 불과할 것이다."

◆ 사이먼 하비, 모넥스 외환 분석 헤드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달러/엔을 낮추는 데 성공하겠지만, 연준의 공격적인 매파적 스탠스와 일본 외환

보유고의 제한된 특성 하에서 중기적으로 정책 결정권자들이 달러/엔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중기적으로 엔 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BOJ가 초완화 정책 기조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로이터한글뉴스서비스)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9월23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409.3	-1.5%	-15.6%	-8.6%	유로	0.9692	-3.2%	-14.8%	-6.9%
100엔 대비	992.7	-2.3%	4.1%	+1.8%	엔	143.34	-0.3%	-19.7%	-10.3%
유로 대비	1,379.0	0.7%	-2.0%	-1.9%	위안	7.1298	-2.2%	-10.9%	+2.7%
위안 대비	199.60	-0.5%	-6.3%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29,590.41	-4.0%	-18.6%	+18.7%
코스피	2,290.00	-3.9%	-23.1%	+3.6%	나스닥	10,867.93	-5.1%	-30.5%	+21.4%
코스닥	729.36	-5.3%	-29.5%	+6.8%	S&P500	3,693.23	-4.6%	-22.5%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469.78	-4.3%	-25.4%	-4.9%
국고채 3Y	4.199%	43.2bp	240.1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4.193%	42.6bp	218.2bp	+67.6bp	미국채 2Y	4.200%	33.0bp	347.0bp	+61.0bp
국고채10Y	4.112%	34.0bp	186.2bp	+53.7bp	미국채 10Y	3.690%	24.0bp	218.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79.43	-7.0%	5.3%	+55.8%	한국 5Y	43.3bp	11.8bp	21.3bp	-0.7bp
금(현물)	1,644.09	-1.9%	-10.1%	-3.6%	일본 5Y	22.1bp	2.0bp	4.5bp	+2.1bp
TR상품지수	3,412.27	0.3%	2.2%	+24.6%	중국 5Y	94.1bp	23.9bp	52.9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